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렘 6:16).

옛신앙

Old-time Faith
www.oldfaith.net

‘**옛신앙**’이란 옛부터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증거했던 신앙, 오직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에만 근거한 신앙, 오늘날 배교와 타협의 풍조에 물들지 않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04072 서울 마포구 독막로 26 (합정동) 합정동교회 김효성 목사, ☎ 02-334-8291, E-mail: oldfaith@hjd.net

주일오전설교 | 아브람이 이기고 돌아옴

[창세기 14:17] 아브람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 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웨 골짜기 곧 왕곡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파하다’는 원어는 ‘치다, 패배시키다, 죽이다’는 뜻을 가진다. 옛날 영어성경은 ‘죽이다’는 말로 번역했다. 소돔 왕의 입장에서 아브람은 그들의 성읍 곧 그 나라 사람들과 그 빼앗긴 재물들을 찾아준 은인이었다. 그러므로 아브람이 돌아올 때 소돔 왕은 사웨 골짜기 곧 왕곡(王谷, 왕의 골짜기)에 나와 아브람을 영접하였다.

[18절] **살렘 왕 델기세텍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살렘 왕 델기세텍은 신비한 인물이다. ‘살렘 왕’은 ‘평화의 왕’이라는 뜻이고, ‘델기세텍’은 ‘의(義)의 왕’이라는 뜻이다. 또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증거되었다. 그가 떡과 포도주를 가져온 것은 아브람과 그의 동료들의 원기 회복을 위해서였을 것이다. 본문은 그가 실제로 역사적 인물이라고 증거하는 것 같다.

많은 유대인들과 성경 연구자들은 델기세텍을 셈이라고 생각한다. 아브람이 롯을 구한 사건은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10년이 되기 전의 일이었다(창 16:3). 그러면 그때는 아담 후 2083년 이전이었다. 셈은 아담 후 1558년경에 출생하여 2158년경까지 살았으므로 또 그는 경건했을 것이므로, 델기세텍과 비슷한 인물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셈이 가나안 땅에 있었을까 하는 점, 그가 셈이라면 셈이라고 부르지 다른 이름으로 불렀을 것 같지 않다는 점, 또 히브리서 7:3에 델기세텍이 “아버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할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고 묘사된 점 등은 셈에게는 어울리지 않는다.

델기세텍이 실제 인물이라면 가나안 족속의 한 왕이라고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히브리서 7:3의 말씀은 그에 대해 족보도, 출생일도, 사망일도 언급이 없다는 뜻일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한 경건한 인물을 가나안 땅에 숨겨두셨다. 칼빈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흠모할 만

한 은혜가 무명의 사람 속에서 더 분명히 빛난다. 왜냐하면 부패된 세상 속에서 델기세텍은 그 땅에서 종교의 바르고 신실한 소유자요 수호자이었던 때문이다”라고 하였고, 매튜 풀은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최악의 장소들과 나라들 가운데서도 그의 남은 자들을 여기 저기 흩어두셨다”고 말했다(성경주석, I, 35).

[19절] **그가 아브람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재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며, 아브람에게 복을 주옵소서.**

델기세텍은 아브람에게 천지의 주재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복을 기원하고 그의 대적들을 그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델기세텍의 말에서, 우리는 그의 경건을 엿본다.

첫째로, 델기세텍은 하나님을 ‘천지의 주재’로 알았다. ‘주재’라는 원어(코네)는 ‘창조자, 소유자’라는 뜻이다(BDB, KB). 하나님께서는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며 그 천지만물의 소유자이시다.

둘째로, 델기세텍은 하나님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으로 알았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혹은 ‘지존자’라는 표현은 성경에 자주 나오는 표현이다. 그것은 시편에 적어도 21번 나오고 다니엘서에 14번이나 나온다. 하나님께서는 저 높고 광대한 하늘보다 더 높으신 자이시다. 그는 초월자이시다. 그의 지혜와 능력은 지극히 탁월하시다.

셋째로, 델기세텍은 하나님을 ‘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알았다. 복은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다. 왜냐하면 그는 만복의 근원이시며 전능하신 왕이시기 때문이다. 신명기 32:39,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와 함께 하는 신이 없도다. 내가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낮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 없도다.” 한나도 말하기를,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게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기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고 했다(삼상 2:6-7). 시편 115:3,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시편

1356, “여호와께서 무릇 기뻐하시는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그러므로 제사장들은 백성들에게, “여호와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와는 그 얼굴로 네게 비취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고 축복하여야 했다(민 6:24-26). 또 시편 1편은 악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사는 자가 복되다고 증거했고, 또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들에서 성도들에게 항상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였다(롬 1:7).

[20절] 너의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라도 하매 아브람이 그 얻은 것에서 . . .

넷째로, 멜기세덱은 아브람의 대적을 아브람의 손에 붙이신 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증거하였다. 이것은 성경적 진리이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힘이시며 방패시고 구원이시며 대적들을 그 발 아래 굴복케 하시는 주권적 섭리자이시다.

다섯째로, 멜기세덱은 하나님을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으로 알았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통해 찬송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자이시다. 사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었다. 이사야 43:7, 21,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에 사람의 첫 번째 존재 목적이 있다.

아브람은 멜기세덱에게 그 얻은 것에서 10분 1을 주었다. ‘그 얻은 것에서’라는 말은 원문에 ‘모든 것의’라고 되어 있다. 여기에 성경에서 최초로 십일조에 대한 언급이 있다. 십일조는 10분의 1이라는 뜻이다. 아브람이 드린 최초의 십일조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표이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복 주심을 인정한 표, 즉 전쟁에서 이긴 것과 빼앗겼던 물건들을 다시 찾은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한 표이었다. 십일조는 하나님과 그의 복 주심을 인정하고 우리의 소득이 그의 복이며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믿음의 표이다.

멜기세덱은 신비한 인물이었다. 그는 죽보도 없고, 출생이나 사망에 대한 언급도 없다. 그는 아브람을 축복하였고 그에게서 십일조를 받았으므로 그의 지존인 레위보다 높은 자이었다. 히브리서 7:1-3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다고 말한다. 그의 이름이 그러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의(義)의 왕이시며 평화의 왕

이시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실상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었다.

[21절] 소돔 왕이 아브람에게 이르되 사람은 . . .

소돔 왕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죽었거나 종이 되었다 할지라도 할 말이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자기 가족들, 친지들, 이웃들을 찾게 되었다. 그는 감히 물품들까지 되돌려달라고 말할 염치가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아브람에게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취하라고 말했다.

[22-23절] 아브람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 . .

아브람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소돔 왕의 제안을 거절하였다. 아브람의 믿음은 멜기세덱의 믿음과 같았다. 그는 “천지의 주재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를 믿었다. 맹세는 하나님 앞에서 엄숙히 진실을 말하는 행위이다. 맹세는 자신의 말이 장난삼아 하는 것이거나 경솔히, 가볍게, 혹은 거짓되이 하는 말이 아니고, 진지하게, 진심으로, 진실하게 하는 것임을 증거한다.

아브람은 그가 전쟁에서 도로 찾은 물건들 중 실한 개나 신발끈 하나도 취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것은 그에게 재물에 대한 욕심이 없었음을 증거한다. 재물 욕심을 버린 자가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이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보화로 삼은 자는 그렇게 할 수 있다. 하나님을 모르고 돈이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사는 자는 결코 그렇게 할 수 없겠지만, 하나님과 천국을 아는 자, 내세를 믿는 자는 그렇게 할 수 있다. 실상,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다.

가치관의 차이는 생활방식의 차이를 만든다. 주의 말씀대로,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기며 살 수 없다(마 6:24). 우리가 참으로 주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천국을 믿는다면, 네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 두라는 주의 말씀(마 6:19-20)에 동의할 것이다. 주께서는 재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다고 말씀하셨다(마 6:21). 또 그는 의식주의 문제 때문에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다(마 6:25 이하).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네가 이 세대에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 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고 교훈하였다(딤후 6:17-18).

아브람이 소돔 왕의 제안을 거절한 까닭은, 자신이

하나님 때문인가 아니고 소돔 왕 때문에 부자가 되었다는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이었다. 그는 그런 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기를 원치 않았다. 경건한 아브람은 세상 재물을 작게 여겼고,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을 크게 여겼다. 사람에게 물질적 부요를 주실 이는 오직 하나님이다. 그의 이름은 영광을 받으셔야 하며 그 영광이 사람에게 돌아가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은 우리의 인격과 삶을 통해 욕을 당하지 않고(롬 2:24)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

[24절] 오직 소년들의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단지, 아브람은 그와 함께 전쟁에 참여했던 소년들이 먹은 것과 그와 동행했던 아넬과 에스골과 마브레의 수고의 댓가는 제외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것은 공정한 요구이었다.

본문의 교훈은 무엇인가? 첫째로, 우리는 참 하나님을 바르게 알자. 멜기세덱과 아브람은 천지의 창조자와 소유자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복을 주시는 하나님, 승전(勝戰)케 하신 하나님,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을 믿었다. 그것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께 대한 바른 지식과 믿음이다. 우리도 그런 바른 지식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우리의 목자로 삼고 사랑하며 그의 복을 사모하며 그의 명령에 순종하자.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물질적 소득의 십일조 이상을 드리자. 아브람은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다가 그를 맞아 축복한 신기한 인물인 멜기세덱에게 소득의 십일조를 드렸다. 그것은 그의 승리와 소득 곧 전쟁노획물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한 것이다. 다윗은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며 헌금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라고 고백했다(대상 29:11-17). 주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셨다(마 6:20). 십일조 헌금은 그런 믿음의 표시이다.

셋째로, 우리는 세상적, 물질적 이익보다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을 더 중히 여기자. 아브람은 물질적 욕심을 품지 않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 중히 여겼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손상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처신하며 살아야 한다.

주일오후설교 복과 화

[레위기 26:1-2]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이나 가나안 땅 사람들의 우상들을 멀리하고 하나님만 섬기며 그의 안식일을 지켜야 했다. 오늘날 우리도 현대적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며 주일을 거룩히 지켜야 한다.

[3-6절]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하나님께서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의 명령을 준행하면 그들에게 씨 뿌릴 때에나 곡식 거둘 때에 비를 주셔서 1년 먹을 양식을 풍족하게 주실 것이며 또 사회적 안정과 평안을 주셔서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나 전쟁의 칼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7-10절] 너희가 대적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하나님께서서는 또 그들이 적은 군사력을 가지고 많은 수의 적군들을 물리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나라의 군사력은 그들의 율법 순종에서 얻는 복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또 그의 언약을 이행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번성케 하고 창대케 하겠다고 말씀하셨다.

[11-13절] 내가 내 장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이 말씀은 놀라운 특권을 보인다. 역사상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기의 장막을 어느 민족 중에 세우시고 그들 중에 행하시며 그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민족이 있었는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놀라운 특권과 복을 약속받았다.

[14-17절]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치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의 명령을 어기면 화를 당할 것이라고 경고하셨다. ‘놀라운 재앙’이라는 원어(베할라)는 ‘갑작스런 재앙’이라는 뜻이다(BDB, NASB, NIV). 예컨대,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을 폐병과 열병 등의 무서운 질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케 하실 것이다. 또 그는 그들이 추수한 곡식을 대적들에게 다 빼앗기게 되므로 그들의 농사의 수고가 헛되게 하실 것이다. 그는 또 주위의 나라들을 대적으로 일으켜 그들을 치게 하실 것이며 그들은 그 전쟁에서 패하고 대적들에게 다스림을 당할 것이다.

[18-20절] 너희가 그렇게 되어도 내게 청종치

“너희 죄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칠배나 더 징치할지라”는 표현과 그와 비슷한 뜻의 표현은 본장에서 네 번 사용되었다(19, 21, 24, 28절). 만일 그들이 하나님의 징벌을 받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을 철저히 징벌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세력을 인한 교만을 꺾으시고 그들의 농사가 헛되게 하실 것이다. 사람은 모든 일이 잘 되고 물질적 풍요가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교만하기 쉬우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그런 교만을 미워하시고 징벌하신다.

[21-26절] 너희가 나를 거스러거슬레 내게

만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지 않으면, 하

나눔께서는 그들을 철저히 징벌하셔서 들짐승들을 보내어 그들의 자녀들과 육축들을 잃게 하실 것이며 인구가 감소하며 도로가 황폐해질 것이다. 또 만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지 않으면, 그는 그들을 전쟁과 무서운 질병과 양식의 부족으로 철저히 치실 것이다. 그들은 자물에 달아 주는 떡을 먹을 것이며 먹어도 배부르지 않을 것이다.

[27-33절]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만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지 않으면, 그는 그들이 극심한 굶주림 때문에 심지어 자기 아들과 딸의 고기를 먹는 처참한 지경에 떨어지게 하실 것이다. 그는 또 그들의 산당과 태양주상을 파괴하시며 그의 마음이 그들을 싫어하실 것이며 그들의 성읍들과 그들의 성소들은 황폐케 되고 그들은 이방나라들에 흩어지게 될 것이다.

[34-39절] 너희가 대적의 땅에 거할 동안에 너희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다. 그때에 땅이 쉬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한 동안 . . .

그들이 평안할 때 율법에 규정된 7년마다 지킬 땅의 안식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대적의 땅에 포로로 잡혀가 있는 동안 그 땅이 황폐한 가운데 안식을 누릴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은 열국들 앞에서 심히 쇠약해지며 쇠잔해지며 두려워 떨 것이다.

[40-45절] 그들이 자기 죄와 그 열조의 죄와 및 그들이 나를 거스린 거스린 허물을 자복하고 또 자기들이 나를 대항하였으므로 나도 그들을 대항하여 그 대적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마음이 낮아져서 그 죄악의 형벌을 순히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며 기억하겠고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고 기억하겠으며 그 땅을 권고하리라[기억하리라]. 그들이 나의 법도를 싫어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땅이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으로 형벌을 순히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대적의 땅에 거할 때에 내가 싫어 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여 나의 그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될이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열방의 목전에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그들의 열조와 맺은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만일 이스라엘 백성이 그 잡혀간 나라에서 자신과 그 열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그가 그의 언약을 기억하여 그들을 돌아보겠다고 약속하셨다. 우리는 무슨 고난이든지 고난 중에서 우리 자신의 죄와 허물을 깨닫고 겸손히 그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의 언약을 기억하

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그 고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다. 그가 그들을 싫어 버리지 않으시고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그들과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는 것은 그의 크신 은혜이다.

[46절]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로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본장의 교훈은 무엇인가? 첫째로, 우리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감사하자.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요구한다. 복과 저주는 온전한 순종 여부에 달려 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이다.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자가 세상에 아무도 없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저주를 받을 만한 존재들이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의가 되셨고 우리는 그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로마서 3:24,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救贖)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실을 감사하며 힘을 내어 더욱 믿음으로 살고 더욱 의롭고 선하게 살자.

둘째로, 우리는 율법을 힘써 순종하며 복을 기대하자. 본장은 계명 순종에 대해 물질적 여유, 환경적 안전과 평안사나운 짐승이나 전쟁으로부터의 안전과 평안을 약속하지만, 계명 불순종에 대해서는 질병, 물질적 궁핍, 전쟁에서의 패배, 기근과 식량 부족, 들짐승, 전쟁, 전염병, 열방 중에 흩어짐, 닥쳐올 일들에 대한 두려움과 놀람 등을 경고한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즉 하나님과 그의 백성과의 관계에 근거한다. 누구든지 저주 대신 복을 기대하려면 율법 순종은 의무이다.

셋째로, 우리는 연약하여 범죄하는 경우 즉시 회개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또 낙심치도 말아야 한다. 우리는 겸손히 회개해야 한다. 하나님의 만세 전의 선택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대속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과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근거가 된다.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기억하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혈은 헛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히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

[책안내] ● 김효성, **역대기 강해**, 제2판, 256쪽, 1,500원.
● 김효성,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강해**, 217쪽, 2,000원.
● 김효성, **열왕기 강해**, 제2판, 217쪽, 2,000원.
● 김효성, **사무엘서 강해**, 제2판, 233쪽, 2,000원.
● 김효성, **전도서 강해**, 제2판, 88쪽, 1,000원.
● 김효성, **사도행전 강해**, 제2판, 239쪽, 2,000원.
● 김효성, **잠언 강해**, 제2판, 624쪽, 4,000원.